

중국, 황금 생산 5년 연속 1위

2011년 361톤으로 5.9% 증가 ... 비철금속 10종 3424만톤

국제 금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중국이 5년 연속 황금 생산 세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통계국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2011년 황금 생산량이 361.0톤으로 2010년 340.9톤에 비해 5.9% 증가함으로써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2007년부터 5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중국의 황금 생산량은 2007년 270.5톤 2008년 282.0톤, 2009년 313.9톤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중국 10대 황금 생산기업의 생산량은 184.0톤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민간 수요가 급증해 금 가격이 폭등하면서 경제적 이익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2010년 초 온스당 1096달러에 거래되던 금 가격은 2011년 말 1712달러로 56.2% 폭등했다.

중국은 대형 황금 생산기업의 탐사능력 강화와 인수합병(M&A) 등을 추진해 자원 점유율과 업종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또 동, 알루미늄, 납, 아연, 니켈, 주석, 안티몬, 마그네슘, 티타늄, 수은 등 비철금속 10종의 2011년 생산량도 3424만톤으로 2010년 3153만톤에 비해 8.6% 증가했다.

중국은 비철금속 공급량이 증가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면서 동, 아연, 납 등 일부 비철금속 수입이 줄었고 유럽 경제위기 영향으로 중국산 비철금속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출가격이 하락하기도 했다.

석탄 생산량은 2011년 35억2000만톤으로 2010년 32억4000만톤에 비해 8.6% 늘었다.

중국은 경제가 장기간 고속성장하면서 석탄 수요가 급증해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5/17>